

# 담배와 술 공해에 대한 관점

최 정 식

옛날에는 젊은이들이 담배고 술이고 함부로 피우거나 마시거나 하지를 았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있다.

또 요즈음 떠들어대는 公害食品이라는 것도 옛날에는 알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다른 世上으로 變했는지 거리에는 젊은이도 다 안된 少年들이 담배를 물고 다니지않나 술집에 가면 그 또래들끼리 마주앉아 술을 마시고 있지않나 또 不良食品에 들어 있는 重金屬類가 몸에 蓄積이 된다고들 떠들어대고 있다는 事實 등을 알게 되었으며 그 일로 因해서 늘 이상야릇한 心性이 가슴에 몽크리고 있다.

그것은 吸煙하는 사람들이 나이많은 사람이거나 成壯人보다도 젊고 애먼 靑少年들 쪽에 더 많다는 事例인 것이다. 담배가 술보다 더 몸에 害롭다고 하는데도 젊은이들이 이를 별로 개의치 않는 것같이 보이며 술도 젊은이들이 더 마시고있는 實情이고 不良食品이나 公

害食品類도 젊은이들이 주로 많이 먹고 있는 것이 지금의 事實이다. 우리들은 그의 對應策을 마련하여 對處해가도록 힘써나가야할 것이다.

나는 이 靑少年들의 沒知覺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다. 自覺없이 때마다 氣分나는대로 피우고 마시며 먹으면서 남이야 어떻든, 이겨레의 앞날이 어찌되던간에 나 하나만 때마다의 瞬間을 즐겁게 보내면 그만이라는 態度로밖에 보이지않는 現狀을 보면서 나라의 앞날을 爲하여 크게 걱정이 된다고 느끼고 慨嘆하는 바이다.

술은 옛날부터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마비시키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담배의 害毒은 醫學的으로 밝혀져 온 세상이 잘알고 있고, 담배가 술보다 훨씬 더 나쁘다는 것, 그 밖의 여러가지 公害食品에 對한 警告도 매스컴이나 新聞·雜誌 등에 수시로 發表되어 國民들에게 啓導하고 있다.

생각하건대 오늘날 늙은이들보다 오

히려 젊은이들이나 靑少年들이 더한층 담배나 술 그리고 公害食品 等に 關하여 各別히 操心하여야 된다는 것은 늙은 이들이야 이제 살아갈 날이 얼마 안된다고 하겠지만 젊은이들은 그야말로 살아가야 할 앞날이 창창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늘이 준 몸, 父母님께서 점지한 몸을 더럽히지 말고 깨끗하게 지켜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錦繡江山과 겨레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自己의 몸을 自己만을 爲한 몸이 아니라 우리들의

로 꼭 믿어서는 안된다고 少年들이나 젊은이들에게 付託하고 싶은 心情이다.

그것은 이 땅에서 푸른 하늘 바라보고 오래 오래 살아가야 할 사람들은 우리같은 늙은 사람들이 아니고 그들과 같은 젊은이들이며, 그들은 나라와 겨레의 앞날을 책임지며 自己의 몸과 마음을 바쳐 일하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 나라와 社會가 未來를 對備하는 課程에서 先進祖國의 創造와 아울러 21世紀 初般에는 地球村을 놀라게 할 수 있게끔 國家의 繁

“자기의 몸은 자기만을 위한 몸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웃과 나라와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몸이란 것을 부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웃과 나라와 地球村의 모든 사람들을 爲한 몸이라는 것을 부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요즘은 너무나 많은 젊은이 나 少年들이 自己中心으로 또는 瞬間적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우리 韓國도 空氣와 물과 땅의 汚染이 너무 深刻하다고 그것을 걱정하는 어른들도 있지만 아직도 大部分의 어른들은 이런 것쯤이야! 하면서 그다지 걱정을 않고 있다.

젊은이들이여! 눈을 똑바로 뜨고 담배·술·公害食品들의 害毒과 危險性을 보라!! 어른들이 公害의 걱정이 없다고 큰소리쳐 말하더라도 그것을 그대

榮과 先進祖國의 建設을 爲한 젊은이들과 國民들의 奮闘努力한 痕迹이 보일 것이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나 靑少年들이 담배와 술 公害食品 等の 害毒性和 禁煙·禁酒·無公害食品을 가가이하는데 對하여 어렸을때부터 相互間的 對話를 통한 指導로서 不足하고 未治한 公害의 智慧와 生活環境의 淨化를 恒常 가슴에 새겨두고 이 나라의 保健體育에 있는 힘 다하여야 할 健康管理에 4,000萬 國民들이 한결같이 힘써야 될 것이라고 굳게 萬人들앞에서 다짐하는 바이다.

<필자=충남 공주·중장국민학교 교장>